

#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상에 나타난 사회상에 대한 연구 (영국 여성의상을 중심으로)

이 의 정  
서일대학 의상과 교수

## **The Relation of Fashion and Social Position of Women in Victorian era ; English Women' s Costume**

Eui-Jung Lee  
Dept. of Fashion Design and Textiles, Seoil College  
(2002. 11. 13. 접수)

### **Abstract**

The nineteenth century was a watershed - the extreme point of difference in the style of fashion dress and in the roles men and women played in society. This conviction has its roots in the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19th centur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w working bourgeoisie' value, fashion and taste were on the rise. The bourgeois, who was not considered as having infallible taste, was looking for its own style, while on the other hand it was competing with the nobility. Therefore bourgeois' own etiquette and taste were appeared. There was ideals which the middle classes were hungry for, and it became the basis of judging an individual. The bourgeois tried to get social approval and used fashion was the mean of it. Bourgeois women fashion has a funtion as a complete symbol of the status, wealth and leisure in a patriachal society. Not only the Bourgeois tried to control themselves and to achieve the virtue of moderation, chastity and obedience by the restrictive costume, but also extravagant and cumbersome dresses has a kind of compensative funtion against a sober and simple men' s dress.

There was a reformative movement to break out of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restrictions within the confines of respectable Victorian Society. The process of reform was long and slow for not only did laws be changed but the barriers of prejudice in a society convinced of man' s mental and physical superiority had to be overcome. But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a small number of progressive women challenged the social recognition and role of women and decisively refused the restrictive and ostentative fashion. Victorian costume was also criticized in the medical and aesthetic aspect for their impracticality. As a result, more funtional and practical women' s clothes has appeared, but it have resulted in a peculiar hybrid of traditional female attire in combination with the more uncomfortable aspects of men' s clothes. However it was becoming an essential look for new women who were the equals of men and wanted to be treated as such.

---

\*본 논문은 2002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Key Words: 부르주아 패션(Bourgeois Fashion), 데미몬다인 패션(Demimondain's fashion), 크리놀린(Crinoline), 블루머리즘(Bloomerism), 래쇼널 드레스 협회(Rational Dress Society)

## I. 서론

19세기는 패션너블한 의복 스타일에 있어서, 남녀의 성 역할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 전환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사회 경제적 변화와 산업혁명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기술과 경제 혁명 즉, 산업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 남녀의 성역할 뿐 아니라 의복 자체의 변화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경제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와 패션, 취향을 갖게 되고 결국 그들만이 열망하는 이상적인 스타일을 확립하여 이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패션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

한편 안정된 빅토리아 사회 속에서 소수 진보적인 여성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그리고 억압적인 패션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개혁의 움직임을 보였다. 많은 난관과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역할에 도전했으며 가시적, 거추장스러운 패션을 거부했다. 또한 빅토리안 의상은 그 비실용성으로 인하여 의학적, 미적 측면에서 의상개혁가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여성복이 탄생되었으나 이는 전통적인 여성복과 남성복의 일부 특정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혼성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이 현대 여성복의 시초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운동주의, 네오 클래식, 사실주의 등도 이들 새로운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현대 사회는 남성과 여성, 부자와 빈자, 교육과 무교육 등의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인 모더니즘의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는 마치 신흥귀족인 부르주아 계층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세습귀족이 몰락하고 새로운 경제 논리에 입각

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재배열되었던 19세기 유럽의 사회상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19세기 패션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의 패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부르주아 여성 의상을 중심으로 이에 화류계 여성과 고급 매춘부인 데미몬다인(demimondain) 패션과 임금 노동자 여성의 패션을 대비시킴으로써, 당시 유럽의 사회와 경제적 변혁이 어떻게 의상 변천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래 의상변천 추이를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패션전략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의복 스타일은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의복 자체는 그 사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미의식이 형성되는 일련의 환경 변화의 일부이다. 의복은 성역할의 사회화의 과정에 있어 수단적 도구이고, 이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견해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의복 스타일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태도와 이미지들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르주아, 데미몬다인, 임금 노동자 여성의 이질적인 세 그룹의 패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19세기의 사회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당시 사회와 현대 사회의 공통점을 도출하여 오늘날 자본사회에서의 사회계층 구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유행의 흐름과 패션산업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복이 부르주아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2.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여성의 의도 정도는 어떠한 한가
3. 사회적 자유를 가져다 준 변화와 여성복의 자유스러워진 형태로의 발전 시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국내외 관련서적을 참고하였으며 시각자료로는 해외의 19세기 당시 희귀한 사진들과 최근의 슬라이드 자료와 비디오자료, 화보 및 엽서등을 사용하였다.

## II. 부르주아 젠더 이미지

### 1. 가부장제 문화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확산과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영향으로 검소한 생활로 회귀하는 사상이 만연하였다. 이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전원풍인 의복을 수용함으로써 의생활에 반영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러한 경향에 자극제가 되었다. 루이 16세 정권 실각 이후, 프랑스에서는 화려하고 정교한 의상은 구정권의 이미지와 결부되었으므로 그러한 차림을 하는 것조차 위험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귀족적이고 과시적인 의복은 인기가 없어졌다. 댄디의 대명사인 보 블루멜(Beau Brummel)은 과거 귀족들의 의상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의상을 선도하였는데, 그는 말쑥하게 재단된 의상에 티 없는 깔끔한 린넨, 탑 햇 차림의 패션을 정착시켰다. 남성들은 점차 신분과 무관하게 동일한 스타일의 차림을 하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남녀의 패셔너블한 의복들은 더욱 단순해지는 경향을 띠었다. 프랑스에 정치적 혁명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기술과 경제혁명이 일어났다. 즉 산업혁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와 생활양식을 등장시켰고, 새로운 남녀 성역할 뿐만 아니라 의복에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1830년대 남녀 복식에 있어 뚜렷한 구분이 생기게 된다. 기업가의 증가는 수적

으로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중산계급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이들은 산업과 무역이 팽창하는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였으며, 일을 중시하고 근엄함과 냉정함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사업가로서 규율과 기능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비즈니스 세력에 적합하고 활동에 자유로운 의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무늬 없는 스타일, 무거운 직물, 침착한 색상과 제한된 종류의 의복을 착용한다. 이 시기부터 여성은 장식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며, 남성과 달리 번덕스러운 패션의 희생양으로 간주되었다. 19세기는 패셔너블한 드레스 스타일에서 그리고 남녀의 사회적 성역할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전환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19세기 사회 경제적 변화와 산업혁명에 기인한다. 상류층의 사회적 도상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신흥 임금 노동자 부르주아의 가치인, 근면, 부의 획득,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지배적이었다. 그들 의복에 있어서의 과장과 장식이 증가와 여가생활이 증가하는 점차 감소해지는 남성복과 몇몇 직업에 종사하는 젠트맨의 수적 증가에 의한 결과로 여겨진다.

### 2. 부르주아 여성

19세기 여성들은 그들의 지력이나 체력이 아닌 순결함, 세련됨, 섬세한 천성, 우아한 신체에 대하여 찬사를 받았으며, 남성들이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보다 연약하고 섬세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남성의 의무이며, 여성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남편의 보다 나은 판단에 따르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겼다. 이러한 불평등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오직 한 가지 측면에서만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은 도덕심과 선량함이었다:

‘여성은 좀 더 나은 천사가 되기 위해, 즉 남성을 악(惡)으로부터 구하고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성에게 주어진 존재이다...이런 훌륭하고 성스러운 자선을 행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혼여성으로서 또는 한 남성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크다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약해지게 된다. 어머니는 세상의 구성원을 창조해내는 존재이며... 따라서 신이 주신 이 놀랍고도 존귀한 임무를 이행하는 여성들은 행복하다”

남성은 더 이상 그들의 부나 지위를 의복을 통해서 걸어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대신에, 그들은 부인들을 훌륭하게 치장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나타냈다. 부인의 의복은 그녀 자신이 ‘일하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으므로 작은 움직임만을 허용하고 좁은 걸음걸이만을 제외한 어떤 활동도 제한하였다. 부인들의 의상은 남편의 지위와 재산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녀들은 남편의 가장 아름다운 소유물이었다.

중산계급은 체면과 여성의 정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평판은 고상한 행실에 대한 이미 정해진 규칙을 엄수했는지에 달려 있었다. 성품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의혹을 받아서는 안됐다. 물론, 남성들은 동일한 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었다. 빅토리아 시대에 데미몬다인의 수적 증가와 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병에 대한 것들이 의회에서 거론된 바 있다. 1860년대 런던에만 약 80,000명의 데미몬다인이 있었고 그들의 고객들 중에는 고위층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sup>2)</sup>. 여성들은 비즈니스와 전문직의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경제적, 육체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였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을 전시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중산계급 가정에서조차 여성은 당대의 일하지 않는 여성을 열망하였다. 하인들이 대부분 집안 일을 도맡아 하고 주인의 자녀들을 돌봤다. 가사에 종사하는 하인의 수 자체가 신분 상징이

되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게 여겨지길 원하고, 일부 여성은 강건하고 건강하게 보여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을 요구하거나 힘든 활동에 종사하려 하지 않았다. 본넷, 파라솔로 태양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책을 하는 것이 매일하기에 적합한 운동으로 여겨졌다.

프랑스 작가 Marcel Proust는 그의 여주인공 중 한 명이자 당대의 최고 여성 중 하나가 된 화류계 여성 Odette de Crecy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녀의 몸매는 단지 노력으로만으로 완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이는 유행하는 패션 덕택인데, 그녀가 파리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허리는 의복의 가장한 스톰마크(stomach) 부분 위로 불룩하게 나왔고, 특정 부분에 이르러 멈췄다; 아래로는 스커트의 물결이 굽어치고 있었다. 여성들은 각 부분은 색다르게 구성된 러플, 플라운스, 베스트와 같이 잘못 조절된 몇몇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라인 은 보우, 레이스 트리밍, 앞에서 가슴을 가린 것에 의해 실제 신체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직물이 얼마나 타이트 혹은 헐렁한지에 따라 형성된다<sup>3)</sup>.’

이러한 단락은 당대의 패션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신체를 거부하였는지와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들을 매혹하기 위한 신체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Odette De Crecy가 정부(情婦)였다는 것은 패션사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이다.

19세기 후반, 다수의 데미몬다인들은 유행의 선도자로 대두되었다. 그녀들은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계급도 없었다. 그들은 어디 출신인

1) White, C(1693-1968). Women's Magazines, Michael Joseph, p. 42.

2) Rouse, Elizabeth(1999). Understanding Fashion, Black Science, p. 113.

3) Lehnert, Gertrud(1999). Fashion: A concise history, Laurence King, pp. 112-113.

지도 모르고 단지 그들의 성공은 전적으로 개성과 외모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켜 관심을 끌어 자신들을 광고하였다. 그 효과가 성공적일 경우 사치스러운 의상은 그들의 애인인 부유한 부르주아 남성들의 부를 대신해주었다. 이러한 탐욕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움은 사회적 계층 이동을 보장하게 되었다.<sup>1)</sup>

따라서 데미몽다인과 패션은 19세기 이후 헤어날 수 없는 불가분의 연결고리를 이루어오고 있다. 부르주아 여성은 화류계 여성들에 의해 선도된 새로운 유행을 모방하였고, 결국 패션은 부르주아와 데미몽다인이라는 이질적인 두 계급간의 접촉지점이 되었다. <사진 1>.



<사진1> 부르주아의 데미몽다인의 관계, 데미몽다인은 19세기 패션리더였다.

### III. 부르주아 문화와 패션

#### 1. 산업혁명과 오트 쿠튀르

귀족들과는 달리 새로운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 부르주아는 확실한 취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산계급은 그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귀족들과 경쟁하는데 그 결과는 일종의 전문화였다. 패션은 이제 새로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자율적인 쿠튀리어가 등장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패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패션의 시작이었다. 즉,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의복의 명백한 분리 뿐 아니라 특정한 디자이너의 이름을 내건 스타일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의복이 제작되는 방식도 변화하였다. 여성 패션은 이제 남성 테일러들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이는 남성들이 이상적인 여성을 만들어냄을 의미하였다. 이 테일러들은 이전에 여성의 의복을 만들어왔던 여자 재봉사, 모자 제작자 혹은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게 '예술가'로 인식되었다.

완전히 별도의 예술가로 인정받게 된 쿠튀리에는 이름없는 장인으로부터 창작 디자이너라는 신분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쿠튀리에의 명성은 그의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어디에서나 환대받을 수 있는, 쿠튀리에 명망높은 고객들이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상승을 가속화해주었다<sup>4)</sup>

산업혁명은 중산계급의 삶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또한 노동에 대한 커다란 수요를 창출하는데, 19세기 초반 여성과 아동이 값싼 노동력으로서 공장과 광산에 고용되었다. 광산에 고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보고한 샤프트베리 위원회는 어린 여성과 소녀들이 남성과 소년들과 똑같은 종류의 노동을 같은 시간동안 땅 밑에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남자들 옆에서 옷통을 벗고 있는 임금노동자 여성들에

4) Grumbach, Didier, 우종길 역(1994). *Histoires de la Mode*, 도서출판 창, p. 25.

관한 많은 기록이 있다.

‘그들이 광산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차림은 머리카락을 모두 가리는 모자와,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바지 그리고 두꺼운 나막신이었다. 그들의 허리는 가려져 있었다<sup>5)</sup>.’

섬유 공장에서 여성들은 위험한 기계 옆에서 때로는 하루 18시간 동안이나 되는 긴 동안 일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신흥 산업도시의 인구밀집된 빈민가로 돌아갔다. 샤프트베리와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 19세기 동안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많은 개혁들이 명백히 그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공장, 작업장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심한 노동을 해야 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강건하였고 우아한 예술이나 스스로를 꾸밀 시간이 없었다. 그들의 옷은 간단했다 - 스커트, 쇼울 그리고 블라우스. 그리고 놀랍게도 간혹 일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바지 차림을 하였다. 북부의 나막신과 남부의 부츠. 중산계급 여성의 생활방식과 옷은 이러한 노동에 기초하였다. 귀부인의 화려한 옷이 가난한 그들의 형제에 대한 착취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여자 재봉사, 단추 제조, 레이스 제조와 같은 의류제작자나 패션 상인들에게 고용되었다. 이 산업은 임금이 낮았고 노동조건도 나쁜 것으로 악명 높았다. 왕립 위원회는 1843년 이에 종사하는 많은 소녀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었다.

## 2. 과시적 소비

1830년대 경 패션 스타일은 성 간의 다른 역할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옷은 더욱 화려하고 구속적이 되었는데 우선,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페티코트가 제작되었고, 더욱 풍만한 스커트를 위해서 1857년에 크리놀린이 도입되었다. 큰 스커트는 뒷모습의 풍만함이 강조되고 버슬이 크

리놀린을 대체한 18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이 말해주는 여성의 지위와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 패셔너블하게 허리를 조이기 위한 코르셋은 육체적으로 여성을 약하게 만들었다. 베블렌에 따르면,

‘코르셋은 인간의 활기를 줄이고 여성을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절단의 도구이다. 코르셋은 착용자의 개인적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그녀가 사치스러움을 시각적으로 증가시키고 병약하게 보이게 하여 좋은 평판을 얻게한다는 점에서 상쇄되었다<sup>6)</sup>.’

빅토리아 시대의 코르셋은 여성의 가혹한 육체적 제한을 통해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족에 비교된다<sup>7)</sup>. 타이트하게 묶으면 가슴은 여자가 숨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진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호흡 곤란을 초래하였는데, 남성들은 배로 숨을 쉬고 여성들은 가슴으로 숨을 쉰다. 이렇게 가슴을 조이는 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왜 그 당시 여성들이 호흡마비와 기절 등에 시달렸는지 설명해준다. 그러나, 건강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임신 중이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조차 코르셋 착용을 고집하였다. 코르셋의 과도한 레이스는 비난받았지만, 코르셋을 입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한 취향으로 간주되었으며, 비도덕적 이기까지는 않더라도 품위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연속적으로 레이스가 달린’, ‘헐렁한’과 같은 형용사는 신체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적용되었다. 육체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여성은 도덕적으로도 해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거대한 스커트, 8 피트나 되는 큰 쇼울, 여성의 시야를 가리는 보닛, 그리고 타이트한 장갑과 구두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스커트는 너무 넓어서 두 여성

5) Extract From First Report of the Children's Employment Commission, Mines Parliamentary Paper, (1842). In: Victorian Culture and Society, ed. E.C.Black, Harper and Row, (1975), p. 172.

6) Veblen, Thorstein, (1931).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Random House Modern Library.

7) Eui Jung, Lee,Sook Hi, Yang(1998). Fetishism, Kyungchunsa, pp. 126-157.

이 함께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소설 '나나'에서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는 두 여성이 극장같은 실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을 만큼 스커트의 폭이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이면 부담스러워 보이는 크리놀린은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에는 여성 해방의 도구로 생각되었다. 마침내 여성들은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엄청난 직물의 무게와 말총으로 만든 파팅게일로 더 이상 보행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크리놀린은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는데, 18세기 이전 것과는 달리 가볍고 유연하였다. 그 결과 스커트의 폭은 더욱 넓어졌고 더 많은 러플들로 장식되었다. 비록 크리놀린은 페티코트를 몇 장이나 겹쳐 입을 필요가 없게 했으며 이로 인해 그 무게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스커트가 공간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가동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문을 통과하거나 앉거나 마차에 타는 단순한 행동조차 복잡한 절차가 되었다(사진 2). 패셔너블한 드레스가 유약한 여성과 사회의 위험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크리놀린은 여성과 그녀의 친구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게 하였는데 악수를 할 때조차 벗지 않았

던 장갑도 마찬가지로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실루엣은 다리나 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의 패션 역사상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정확하게 이 감추는 성질이 그 거대한 스커트를 더욱 유혹적인 것으로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것이 남성의 성적 환상의 대상이 되었고 더욱 유혹적인 것이 되었다<sup>8)</sup>.

거대한 스커트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예측불가능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어서 더욱 매력적이었다. 그런 후프 스커트를 입고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들었고 프레임을 들기 전에는 앉기 힘들었으며 하반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패션 역사가 제임스 레버에 따르면, 후프 스커트 이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장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레버는 크리놀린의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설명한다:

'크리놀린은 걸어갈 때마다 좌우로 자극적으로 흔들려 남성을 유혹한다. 형태는 에스키모의 이글루와 닮아 무거워보이지만 바람이 부는대로 흔들리는 풍선처럼 가볍다. 어느 쪽이든 조금만 누르면 반동에 의해 금방 반대쪽이 움직여 스커트가 올라갔으며 종종 바람에 날려 뒤집히면 발목, 다리, 속옷까지도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빅토리아 시대 남성들은 스커트를 들어올릴 때마다 보이는 여성의 발목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츠 패션이 새롭게 유행하게 되었다<sup>9)</sup>.'

1840년대를 통하여 여성의 신은 큰 스커트에 가리워져 밖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뒷굽이 없는 발레리나 슬리퍼 형태 였으나, 이제 레이스 장식을 단 굽 높은 앵클 부츠를 후프 스커트와 크리놀린과 함께 착용하게 되었다.

결국 1860년대 후반 스커트의 중심이 후반신으로 옮겨져 크리놀린은 뒤쪽 반만이 되었다. 반-크리놀린이라 알려진 이 형태는 허리 아래쯤



(사진2) 거추장스런 크리놀린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다.

8) Ibid, pp. 231-241.

9) Wilson, Elizabeth, 앞의 책, p. 33, Laver, James(1996). Costume & Fashion, Thames & Hudson, p. 184.

에 프레임이 달렸으며 충전제로 부풀리고 때때로 긴 트레일을 다는 버슬이 되었다. 길이가 긴 플리츠 박스 트레일이 꽃 모티브로 장식한 아름다운 실크 버슬에 달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거추장스런 스타일은 부와 여가를 나타내었다. 그러한 의복 착용자는 항상 트레인이 거리에 질질 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다녔다. 이러한 스타일은 베블렌(Veblen)이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라고 명명한 값비싼 상품을 구매하고 동시에 착용자가 생활비를 벌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가지는 예를 보여준다. 직물의 과시적 사용은 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상류층 사람들은 몇 세기 전, 예를 들어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길고 풍성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부를 과시하였다. 베블렌의 '과시적 소비 이론'은 단지 19세기 부르주아에게만 제한되는 않는다. 많은 가정의 사회적 신분의 상향이동이 가능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지위에 대한 커다란 선입견을 가졌다.

그러나 의복의 가치와 직물 유형은 분명히 부의 지표가 되기는 했지만 단지 소비하고 추구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여성들은 반드시 유행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지만은 않았으며, 실제 여성은 좋은 취향의 미모하고 섬세함을 이해하고 의복의 복잡한 에티켓에 익숙했다. 중산계급의 상향 이동이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다. 모든 계급이 훌륭한 예절을 익히는 것을 중시하는데 기여하였다. 좋은 취향이 확립되었고 이는 지배적인 계급의 취향이었으며 그 법칙은 여전히 실제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으며, 상류계급의 지표였다. 실제 여성들은 칼라, 소재, 트리밍, 의복의 조합이 좋은 취향인지를 알고 있었다(사진 3).

#### IV. 변화의 시작

빅토리아 사회는 여성의 신분 향상을 위해 교육규정과 고용분야에 있어 개혁이 요구되었다. 결혼과 재산권 특히 참정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성문화되어 있었다. 기혼 여성의 재산



(사진3) Princess-Alexandra(Albert왕자의 아내);그녀의 아름다움과 패션은 모든 계층의 영국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권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인 투표권에 대한 투쟁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888년과 1893년의 두 법안으로 지역 선거를 통해 제한된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일부 여성들은 재산권의 인정과 최소한의 투표권에 만족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들은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정권과 재산권을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 여성 참정권론자들은 때때로 투쟁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폭력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은 이들 참정권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더 차갑게 만들었고, 그들은 '여성답지 못하고' 비이성적이며, 히스테리컬하다고 비난받았다.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계급 소녀들에 대한 교육이 가속화되었다. 교과과정에는 스포츠가 포함되어, 미용체조, 하키, 네트볼, 테니스, 펜싱, 스케이트 같은 일련의 운동들이 소개되었다. 스포츠는 소녀들의 일반적인 건강 및 체력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연약하



고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은 운동을 즐기게 시작했으며, 19세기 말경 스포츠는 상류층과 중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가활동이 되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된 취향은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여성이 결혼 적령기를 놓치게 한다는 단점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Blue Stockings'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교육은 여성에게 있어 '부자연스럽고' 장차 소녀가 자식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과거 숙녀(gentlewoman)에게 어울리는 두 가지 고상한 직업은 가정교사와 재봉사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여성만이 이러한 직업을 가졌다. Florence Nightingale과 같은 인물은 여성이 집밖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던 빅토리아 시대의 인식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크림전쟁에서 병들거나 다친 부상병들을 돌보는 그녀의 업적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이에 그녀는 간호행위를 존경받고 존경받을 만한 전문직업으로 확립시켰다. Elizabeth Garrett Anderson은 영국에서 여의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사회의 거센 반대와 편견을 거부하고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그들과 같이 다른 여성들도 여성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공유하였고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힘겹게 투쟁하였다. 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 1854년 크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여성들은 이전까지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대형 소매점과 같은 일자리로 진출하기 시작했다<sup>10)</sup>.

전화와 타자기의 발명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고용기회를 마련해주었다. 1890년 의무교육의 시작으로 여성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다.

## V. 여성신체의 해방

### 1. 블루머리즘과 유미주의 드레스

빅토리아 의상은 그 비실용성으로 인하여 의학적 측면과 미적 측면에서 공격을 받아왔다<sup>11)</sup>. 그 최초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국에서 온 블루머리즘(Bloomerism)이라는 형태이다. 아멜리아 블루머(Amelian Bloomer) 여사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블루머'라는 의상을 선보였는데 이는 터키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발목길이의 바지 위에 무릎 길이의 스커트를 덧입는 형태였다. 이 의복스타일의 삽화가 그녀의 남편이 경영하던 신문에 최초로 게재되었고 활발한 여성 운동가였던 블루머 여사는 보다 실용적인 형태의 의상으로서 블루머를 일상복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블루머를 착용하고 강연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그녀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유럽 풍자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다수 여성이 여전히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으므로 블루머와 같이 '우아하지 못한' 의상을 입을 수 없었다. 1850년대 말, 블루머 여사 자신도 블루머 착용을 포기하였는데, 아멜리아 블루머와 그녀의 개혁시도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기 시작할 경우 가부장제는 분명히 붕괴될 것이며 남성들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지는, 심지어 블루머조차도, 남성의 권력과 동의어였으며,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일군(群)의 화가들인 라파엘전파(Pre-Raphaelites)는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패셔너블한 의복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라파엘 전파는 1848년 결성되었다<sup>12)</sup>. 이들은 기존의 화풍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예술, 즉 이상(理想)을 표현하되 현실에 충실한 화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관심은 그들 회화

10) By 1914, One hundred out of the three hundred assistant employed by Peter Robinson were women.

11) Beale, Dr. Lionel. (1850). The laws of health in relation to the mind and body 46 and Mrs. Merrifield Dress as Art, pp. 105-106.

12) Members of the Brotherhood, included Millais, Rossetti, Hunt and Watts.

에 주로 등장하는 주름과 드레이퍼리가 많은 의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묘사로 이어졌다. 라파엘 전파의 멤버인 로세티(Rossetti)는 특히 중세와 관련된 테마에 관심이 많았으며 따라서 중세 의상을 연구하고 재창조할 필요를 느꼈다. 그의 아내는 동시의 그의 모델이기도 했으며 숙련된 재봉사였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의상을 직접 제작할 수 있었다. 1854년 당시에는 코르셋으로 압박한 가는 허리와 크리놀린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지만 로세티는 코르셋도 크리놀린도 착용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의상을 입은 자신의 아내를 그렸다. 그의 아내는 이러한 의상을 일상복으로 채택하여 애용하였다. 신체를 구속하는 코르셋과 거동에 불편한 크리놀린에 비해 이런 의상들은 착용이 편리하고 착용시 편안했다. 라파엘 전파의 또 다른 화가들 역시 르네상스와 고대 의상에 기초한 의상들을 표현했다. 이들그룹에 속한 여성들 또한 이 급진적인 예술그룹이 정착하고 안정되기까지 이러한 자유스러운 의복을 착용하였다. 후에 이런 의상을 예술의상 혹은 유티주의 드레스라 부르며 1870년대에 이르러 보다 일반화되었다<사진 4>. 유티주의 드레스는 소수에 의해 채택된 패션에 머물렀으나 이들은 이런 의상을 채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아방가르드 예술가 그룹과의 연계하기를 시도하였다. 더욱이 이는 찰스 프레드릭 워드와 같은 파리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



(사진4) Jane Burden(Mrs. William Horiss);라파엘전파였던 로세티의 모델이었던 그녀는 당시 유행하던 크리놀린을 생략한 예술의상을 즐겨 입었다.

을 뿐 아니라, 또한 런던의 리버티 그룹은 작업실에서 유티주의 가운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2. 보건 위생 개혁 (Health and Hygienic Reform)

당대 패션에 대한 보다 뚜렷하고 직접적인 공격은 건강에 유익하고 위생적인 드레스로의 변화를 주창하는 여성복 개혁가로부터 나왔다. 래쇼널 드레스 협회(Rational Dress Society)는 1881년 Haberton 자작부인을 회장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그 목표와 원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래쇼널 드레스 협회’는 건강을 해치는 어떤 유행이나 신체를 변형시키는 어떤 의복, 활동을 저해하는 어떤 패션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신체를 타이트하게 억압하는 코르셋, 하이힐, 얇고 뾰족한 부츠와 구두에 반대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무게의 스커트, 팔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Tie-down cloak과 다른 의복 모두의 착용에 반대한다. 우리는 보기에도 추할 뿐 아니라 외관도 변화시키는 어떠한 종류의 크리놀린과 크리놀레테(crinolettes)도 반대한다. 래쇼널 드레스 협회의 목표는 개개인의 취향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건강과 안락함과 아름다움을 고려한 의복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패션변화에 반대하는 것이다<sup>13)</sup>.

Haberton 자작부인은 디바이디드 스커트의 착용을 주장하였으나 래쇼널 드레스 협회 회원들조차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 의상을 착용하지는 않았다. 1884년 래쇼널 드레스 협회는 국제 보건 박람회(International Health Exhibition)에 참가하였다. 또다른 전시자였으며 독일 출신의 의사인 예거(Jaeger)박사는 동물성 섬유가 식물성 섬유로는 불가능한 땀의 흡수와 증발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소재로서 면같은 식물성 섬유보다 오히려

13) Newton, S.(1974). Health, Art and Reason, John Murray.

모섬유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련의 모섬유의 편성직물로 된 언더웨어와 아웃웨어를 생산했다. 런던 리젠트 가에 1884년 설립된 그의 상점에 오는 고객 중에는 진보적인 지식인이 많았고, 애호가들 중에는 아내가 의상 개혁의 선봉자였던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사진 5〉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사진 6〉등이 있었다.

여성의 패셔너블한 의상에 있어서 변화가 제한되었다면 부와 여가와 관련되어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는 여행과 스포츠이다. 여행은 19세기에 이르러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의 개발로 인해 여행 기회가 증가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많



〈사진5〉 조지버나드 쇼;의상개혁운동의 애호가였다.(왼쪽)  
 〈사진6〉 오스카와일드;패셔너블한 의상과 스캔들 메이커로 유명했던 오스카도 개혁의상을 즐겨입었다.(오른쪽)

은 장소로 여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들은 보다 실용적인 의상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또한 스포츠의 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졌다. 젊은 여성들은 산책, 등산, 요트, 자동차 경주,

테니스, 크리켓, 롤러 스케이트 등의 다양한 스포츠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증가하는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스포츠웨어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Peel)여사는 1880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테니스를 칠 때 우리는 길이가 긴 스커트를 입고, 뾰뾰한 칼라가 달린 깨끗한 셔츠를 입고 타이를 맨 후 남성용 밀집 모자를 썼다. 셔츠와 스커트가 겹치는 부분은 피터삼(Petersham) 벨트를 하고 그 위에 장식 옷핀을 꽂아 고정시켰다<sup>14)</sup>.’

19세기 중반 자전거는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게 됨에 따라 생긴 스커트 밑에 착용하여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활동성을 부여해주는 배기 니커보커즈와 블루머의 착용이 요구되었다. 블루머 여사와 Haberton 자작부인이 실패했던 것을 자전거가 이룬 셈이다. 그러나, 해방의 정도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이 여전히 지나치게 정숙했으며, 블루머는 단지 정숙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Ballin 여사는 1885년 사이클링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안감을 맨 플란넬이 스테이 대신 울로된 컴비네이션과 플란넬로 된 바디 위에 착용되었는데 의상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니커보커즈에 잠금장치로 단추를 달았다....물론 이러한 속옷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좋았다<sup>15)</sup>.’

또 다른 비평들은 주의력 부족과 정숙성의 부족에 대한 것으로 Gwen Raverat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프록과 프릴달린 드로어즈 위에 배기 니커보

14) Adburgham, A.(1964). Shops and Shopping 1810-1914, George Alien and Unwin, p.33.

키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끔찍하리만큼 부적절하다.<sup>15)</sup>

아마도 자전거는 의복에 자유를 가져온 것만큼 사회적 자유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자전거가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에 사교계에 나오는 소녀들을 따라 다니며 돌봐주던 샤프롱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뾰뾰한 칼라와 타이가 달린 테니스복이나 노포크 자켓(Norfolk Jacket)에 펠트제의 중절모를 조화시킨 사이클링복은 당시 남성복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한 형태였다. 보다 실용적인 여성용 스포츠웨어 생산의 시도는 전통적 여성복장과 남성복이 가진 불편한 요소들의 혼성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양한 스포츠복은 빅토리아 시대와 에드워드 시대의 여성복에 필수 품목이 되었다.

남성복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분명한 또 다른 스타일은 '맞춤복'이다. 뾰뾰한 칼라가 달린 셔츠에 타이를 매고 밀짚모자를 함께 착용하였는데 이는 '신여성'의 유니폼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허리는 여전히 타이트하게 졸라매었고 스커트와 언더스커트는 여전히 길이가 길어 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러나 매우 남성적인 여성의 의복 스타일은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이려 하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태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룩이었다.

## VI. 결론

1. 19세기는 패셔너블한 드레스의 스타일과 사회적 성 역할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전환점이다. 빅토리아 패션은 가부장제 하에서 부르주아의 상징이 되었으며 의복은 상류계급, 부, 사회 신분과 고급 취향의 중요한 척도였다.

19세기 사회 경제적 변화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남성은 걸치레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고, 점차 이들의 의복은 단순성과 기능성이 증가하였다. 그후 패션은 여성 지배적인 분야가 되었으며, 여성들은 남편의 신분 상징물로 전락하였다.

2. 새롭게 획득한 부로 급부상한 부르주아는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취향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중산계급은 귀족층에 대하여 그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했다. 쿠티리에의 전문성이 증가하고 부르주아가 자신들의 에티켓과 취향을 나타내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이 시작되었다. 코르셋, 크리놀린, 후프 스커트, 버슬과 같은 몇몇 활동을 제한하는 패션들이 유약함, 겸손함, 고상한 태도로 형상화되는 여성의 개념을 자극하고 영속화하였다. 이러한 낭비적이고 거추장스러운 의복들은 과시적인 부(富)뿐만 아니라 여가를 암시했다.
3. 빅토리아 사회 내에서 사회, 경제적 제약과 신체적으로 구속하는 의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개혁 과정은 길고 더뎠는데,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남성의 정신적 신체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사회 내의 편견의 장벽이 극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여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키고, 유행에 충실하는 것과 체면을 중시한 옷차림을 거부하였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과 의무교육 그리고 고용 기회에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4. 빅토리아 시대의 의복은 그 비실용성으로 인해 의학적 측면과 미적 측면 모두에서 비난을 받았다. 보다 실용적인 의복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남성복이 가진 보다 불편한 특성과 전통적인 여성복을 결합시킨 독특한 혼성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신 여성'의

15) Ibid.

16) Breward, Christopher.(1995).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단순하고 남성적인 스타일은 자신들이 남성과 동등하며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여성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넌센스적인 룩을 창조하였다. 새로운 타입의 이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사회적 자유, 보다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것, 전문직을 추구한다. 이러한 전문직 여성은 빅토리아 후반기와 에드워드 시대의 과장되고 사치스런 패셔너블한 스타일이 아닌 실용적인 의복을 요구하였다.

### 참고 문헌

- Buck, Anne(1984). Victorian Costume, Ruth Bean Carlton, Bedford.
- Callen(1998). Georgina O'Hara.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ames & Hudson.
- Cassin-Scott, Jack(1997). Costume and Fashion, Brockhampton Press.
- Crowley, David(1998). Victorian Style, Eagle Editions.
- Ginsburg, Madeleine(1982). Victorian Dress in Photographs, B.T.Batsford.
- Ginsburg, Madeleine(1999). Hart and Mendes. Four Hundred Years of Fashion, V&A Publication.
- Mackrell, Alice(1997). An Illustrated History of Fashion, B.T.Batsford.
- Marly, Diana(1989). Fashion for Men, B.T.Batsford.
- Thesander, Marianne(1997). The Feminine Ideal, Reaktion Book.